현실도피로 현실로 복귀하라

(이사야 66:1~24)

1.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2.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3.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4.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현실도피로 현실로 복귀하라>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현실도피로 현실로 복귀하라'
현실을 도피해서 현실로 복귀하라니 이율배반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만 무슨 의미일까요?
고려시대의 가요 중에 청산별곡(靑山別曲)이 있습니다. 8연으로 되어 있는데 앞의 두 연만 살펴보겠습니다.

살어리 살어리랏다 쳥산(靑山)애 살어리랏다
멀위랑 다래랑 먹고 쳥산(靑山)애 살어리랏다
얄리 얄리 얄랑셩 얄라리 얄라

우러라 우러라 새여 자고 니러 우러라 새여
널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리노라
얄리 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청산별곡은 고려 무신 정권 때에 민생이 피폐해지자 이곳저곳을 유랑하던 백성들의 고단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청산'은 자연적이거나 실제로 존재하는 공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이 지향하고 있는 이상향을 뜻합니다. 작가는 삶의 현실이 너무 힘들고 고단하기에 마음으로나마 삶의 고뇌와 비애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상적인 공간으로 청산을 찾아 떠돌아다니고 있는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연의 '새'가 의미하는 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는 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어느 곳에든지 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땅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을 상징합니다. 또한 새는 현실적으로 삶의 비애를 참지 못해서 괴로운 심정을 눈물로 달래는 작가 자신과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새가 우는 모습을 자신이 우는 모습과 동일시하면서 새처럼 땅의 무겁고 괴로운 현실을 벗어나 창공으로 날아가고 싶다는 바람이 담겨있습니다. 여기서 도피하고자 하는 무겁고 괴로운 현실은 단지 배고픔이나 고단함 같은 육체적인 고통만은 아닐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가해지는 압박감 같은 것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현실도피가 있습니다. 이것은 심적으로 약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가해지는 압박된 현실을 극복하고 이겨내지 못해서 도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예외 없이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삼위일체 되심에서 발생하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어져오는 사랑과 기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우선적인 현실이고 가장 가까이 있는 현실이고 가장 확실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받아들인 삶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11절부터 나타납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만족'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하반절을 보면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영광과 즐거움'이라는 개념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영광은 하나님께만 조명이 비추는 것입니다. 본문의 키워드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사실들이 현실로 선택받기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게 돈이 없든지 많든지 하나의 사실입니다. 얼굴이 못 생겼다면 그것도 사실입니다. 내 가족의 형편이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하나의 사실로써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도 사실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나의 현실로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입니다. 나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조명을 받으셔서 밝히 보이면 나의 현실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만족과 즐거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어서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 같이, 그에게 뭇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 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앞서 보았던 만족과 즐거움에 이어서 평강이 등장하고 다시 영광이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현실로 받아들인 자들이 뭇 나라에서 주목받게 되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마치 어머니의 무릎에서 노는 자녀들의 모습과 같으리라는 것입니다.
또 13절을 보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14절에서는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고 하였습니다. 또 기쁨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22절에서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현실로 삼은 사람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모든 인간이 태어나 자라면서 가장 우선적 현실에 대해 도피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 옆에 와계시고, 삼위일체 되심에 초청받고 있다는 현실에서 도피합니다. 일반적으로 현실도피는 현실이 괴롭고 힘들 때에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대상에게 마음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현실도피는 이와 반대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문학가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완벽한 이상적인 현실을 도피해서, 오히려 열악하고 참담하고 참혹한 상황으로 빠져 들어가서 사는 것을 일생의 업으로 여깁니다.
청산별곡으로 말하자면 청산의 상황이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상향이 아니라 이상적인 현실로 주어져 있는데 이 상황을 도피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이상적이지 않고 괴롭고 힘든 곳에 들어가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신앙인의 생각은 세상과 반대가 되어야만 합니다. 제가 60살이 되었는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60평생을 살면서 대체 무엇을 했나?’라는 생각이 들 만합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이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사랑과 기쁨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초정하고 계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초청에 도피하지 않고 현실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 마음과 이 세상의 삶과 사후의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상태로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야 하는데 도피를 하며 살아갑니다.
이사야는 본문에서 이 괴상한 현실도피로부터 빠져나올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 세상을 현실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실은 괴상한 현실도피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결코 우리의 우선적인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 있고 없음이 왜 현실이 되

어야 합니까? 암에 걸린 것이 왜 현실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현실은 삼위일체 되심 안에서 영원한 기쁨과 만족으로 초청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현실로 삼게 되는 이유는 에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귀는 사람을 유혹하여 하나님이라는 현실로부터 도피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담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하나님을 도피하여 숨었습니다.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낙원입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현실을 마귀가 도피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도피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압박에 시달리는 곳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분통이 터질 일입니다.

본문은 성전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성전에 관한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라고 하였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성전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선민들을 괴상한 현실도피로부터 도피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장소였습니다. 특히 성전의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를 통해서 이 기회가 제공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3절 이하에 보면 이 제사가 엉망진창이 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약성경의 제사는 선민들의 괴상한 현실도피를 끊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실은 곧 마음에 담은 사실입니다. 사실은 숱하게 존재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선택한 것들만 마음에 담기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인도나 아프리카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은 객관적 사실입니다. 나의 현실은 아닙니다. 마음에 담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현실이 되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마음에 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선민들조차 하나님을 담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현실이 되셔야 할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한 것입니다. 이상향을 등지고 세상을 향하고는 기껏해야 돈이나 건강 같은 것들을 마음의 현실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것들을 현실로 삼는 이유는 그것으로부터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들이 참 기쁨을 줄 수 없기에 삶은 어렵고 힘들어지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되돌려놓을 방법으로 성전을 허락하셨습니다. 성전에서 드려지

는 제사는 하나님이라는 현실을 도피해서 이 세상을 현실로 여기는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제물로 바쳐진 양과 소는 세상에 대해 죽은 나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선민들이 이 제사조차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세상 것을 담은 마음을 유지하면서 그 길을 잘 걷기 위한 방법으로 제사를 바꾸어버렸습니다.
마음에 돈을 담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돈은 현실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마음에 담고는 하나님께 돈을 더 많이 벌게 해달라고 제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제사의 의미가 파괴되자 하나님께서는 더는 성전에 계실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며 찾았던 이유는 하나님을 머슴처럼 부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현실로 여기고 살아갈 때에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때에 머슴처럼 부리며 소원을 이루게 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고자 했던 것입니다. 마치 머슴을 행랑채에 살게 하면서 일을 시켰던 것과 같습니다. 필요한 때에 제사를 드리겠으니 제사를 받으시고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민을 버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2절의 하반절을 보면 이와 반대되는 이들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해 지불할 마음이 남아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하다’라는 것은 물건을 사고 싶은데 지불할 돈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겁내는 자들입니다. 예를 들어 계좌에 돈은 넣어놨는데 갑자기 없어졌다면 겁이 날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에 담아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질 상황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현실로 되찾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제사는 이처럼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에 가족을 담았습니다. 마음에 담으면 배우자에게 마음을 쓰게 되고, 자녀들에게도 마음을 쓰게 됩니다. 자꾸 마음을 쓸 수 있으니 마음이 세상에 대해 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업에도 마음을 씁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거기에도 마음을 씁니다. 취미를 위해 마음을 씁니다. 이렇게 마음을 쓰는 이유는 이 세상이 현실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괴상한 현실도피가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가난한 자는 어떨까요? 가족이 됐든 사업이 됐든 마음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담는 데 모든 마음을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담았기에 하나님이 현실이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이 제사였습니다.
마음에 배우자가 담길 때에 얼른 성전의 번제단을 생각하며 그 마음을 죽입니다. 또 마음에

자녀가 담깁니다. 그러면 또 자녀를 담은 마음을 어린 양과 함께 죽입니다. 사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제사를 통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세상에 대한 도피입니다. 세상에 대해 도피하는 이유는 본래 현실인 하나님을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 마음을 쓰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분의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 이 세상에 대해서 마음을 하나도 쓰지 않는 가난뱅이가 되어야만 합니다. 마음에 담기려는 것들이 생길 때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함을 통해 가난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마음을 쓰지 않는 인색한 짠돌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길을 따르게 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현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마음에 기쁨과 만족과 평강과 위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뭇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 같이 주리니'라고 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떠나보낸 이 세상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나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고, 죽은 후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하신 집에 나를 부르실 것입니다. 이것을 현실로 받아들일 때에 이러한 이상적인 꿈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책을 사보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기 위한 일곱 가지 습관을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초청을 나의 현실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죄의 체질에 장악되어서 자꾸 이 세상을 현실로 담으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현실도피 방법으로써 십자가를 허락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참 현실을 되찾으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으로 삶은 완벽하게 매듭지어집니다.
나의 현실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가족이나 사업이나 내 몸조차도 나의 현실이 될 수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현실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끼시는 장갑이 되면 됩니다. 장갑은 접촉하지만 일을 하는 주체는 아닙니다. 장갑을 낀 자가 일을 할 뿐입니다. 세상을 대하는 것은 나이지만 일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현실로 삼고 하나님만을 보고 있으면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별 볼일 없고 이룬 것도 없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현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현실은 삼위일체 되심 안에서 영원한 사랑과 기쁨에 참여되도록 초청받았다는 것입니다. 거짓 현실에 속지 마세요. 그 거짓 현실에서 십자가를 통해 죽음으로써 도피하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현실로 받아들이면 설령 죽을병에 걸렸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죽어야 한다면 죽을 것이고 좀 더 살아야 한다면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죽는다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들을 하늘에서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천국이 우선적인 현실입니다. 살리신다 하여도 나는 하나님의 장갑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이사야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어서 이 세상이라는 현실에서 도피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나 번제단은 이 세상을 현실로 생각하고 있는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인하는 것과 같고 돼지 피를 드리고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는 것과 같은 모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을 현실로 여기는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초청받는 현실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의 현실로 삼아서 해나가실 과제가 될 것입니다. 내 마음과 육체의 삶과 사후의 세계까지도 완벽하게 통일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가장 이상적인 삶의 형태가 제공되는 현실을 피해서 너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을 찾아 들어가는 괴상한 현실도피를 해왔습니다. 이제는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세상에 대해 도피하게 하시고 본래의 현실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마음에는 기쁨과 만족과 평강과 위로가 넘치고,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의 현실이 되어서 주렁주렁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